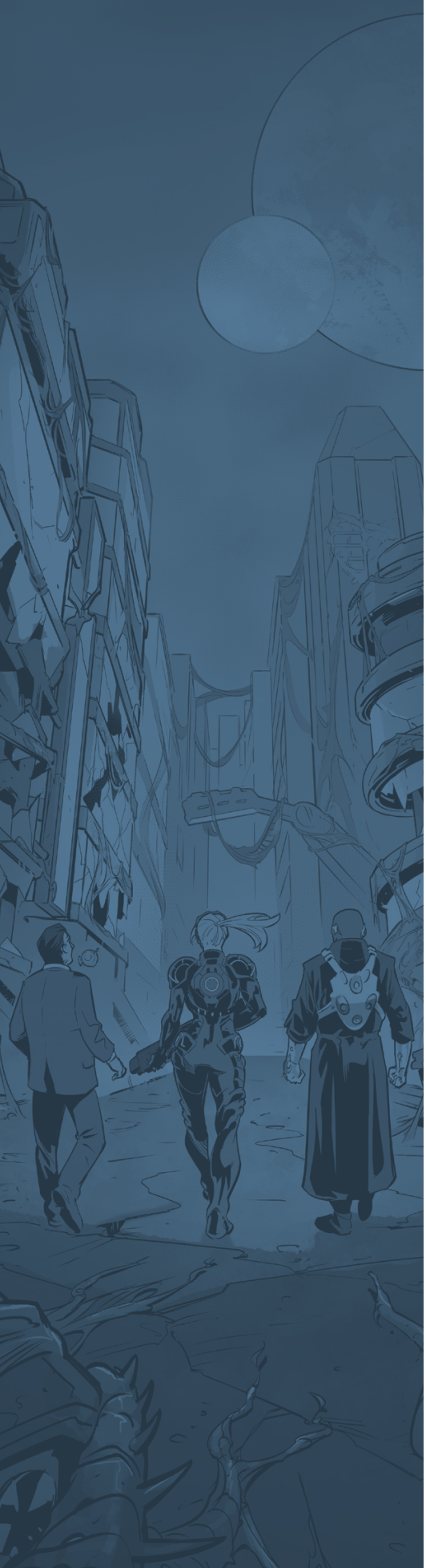
BLIZZARD ENTERTAINMENT
STARCRAFT II
WAR CHEST
야수의 본능
제 2 부
BRIAN ALEXANDER
CARLOS RODRÍGUEZ
SANDRA MOLINA



야수의 본능
제 2 부

BRIAN ALEXANDER 글

JUNE KIM 번역

CARLOS RODRÍGUEZ 그림

SANDRA MOLINA 채색

JIHYE SOPHIA HONG 식자

MATT BURNS 편집자
ALLISON IRONS

PAUL MORRISSEY 수석 편집자
CHLOE FRABONI

CARLOS RODRÍGUEZ 표지
SANDRA MOLINA

JOHN J. HILL 그래픽 디자인

KEVIN DONG 크리에이티브 자문
ROBERT BROOKS
CHRIS FUGATE
GEORGE KRSTIC
ROB MCNAUGHTON
RYAN SCHUTTER

MADI BUCKINGHAM 세계관 자문
SEAN COPELAND
JUSTIN PARKER

FELICE HUANG 프로듀서
PABLO A. LLOREDA
BRIE MESSINA
ELENA NIKORA

BYRON PARNELL 글로벌 라이센싱 디렉터

DAVID SEEHOLZER 크리에이티브 개발 디렉터

DAVID MACHO-GÓMEZ 도움 주신 분

기어 스토어에서 다른 블리자드 상품을 살펴보세요.
GEAR.BLIZZARD.COM

STARCRAFT: WAR CHEST - 야수의 본능, 제 2 부. © 2020 Blizzard Entertainment, Inc. All rights reserved. StarCraft and Blizzard Entertainment are trademarks and/or registered trademarks of Blizzard Entertainment, Inc., in the U.S. and/or other countries.

그 사람을 찾아야 돼.
우리 임무는 그게 아냐.
우리가 돕지 않으면 죽을 거라고.
놈이 혼자 자초한 일이야.
너무 냉혹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도니 버밀리언이 우스워 보일 수도 있지만 녀석의 선동으로 많은 이가 목숨을 잃었어.
이 구역에서 가장 큰 **조룸** 덩어리가 요만큼 **가까이** 있는데...
...저 카메라를 든 멍청이 때문에 놓치고 싶어?
그 사람이 결백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 손에 얼마나 더 피를 묻혀야 하냐는 거지.
알았어. 그럼 후딱 처리하자고.

좋았어, 도니...
넌 할 수 있어.
5, 4, 3, 2...
여기는
도니 버밀리언...
타르타루스 행성에서
생방송으로 전합니다.
음, **생방송**이
맞긴 한데
뭔가 신호가
불안정하군요.
•REC
00:00:10
후세를 위해
이 방송은 일단
녹화하겠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오염은 여지껏
본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 살아남았을
거라곤 상상조차...
거기
멈추세요!
쏘지
마세요!
저예요.
저 도니
버밀리언입니다.
누구요?
그래요...
사인 한 장
해드릴까요?

우리 첫인사가 잘못된 거 같군요. 그쪽은 이름이...?
에블린 유 박사요. 여긴 제 아들 준호고요.
모르는 분을 초면에 협박하고 싶진 않지만...
...한 달 동안 끔찍한 일을 너무 많이 겪었어요. 우릴 당신 우주선으로 데려가요. 지금 당장.
없습니다. 제 우주선은 터져버렸다고요.
거짓말 마세요.
움직이지 말랬잖아요!
거짓말이라뇨! 전 항상 진실만을 말합니다.
실망한 건 충분히 알겠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할 필요는 없어요.
진짜... 극단적인 선택이 뭔지 보여 드리죠.
슈슈슈샥...
이런 망할... 저거 제가 생각하는 그거 맞죠?!
으윽!

헉헉헉
이런 안 돼...
슈슈슈슉...
집에 가고 싶어. 집에 가고 싶어.
타탕

도니 버밀리언... 당신 대체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지?!
엄....
좀 전에 그 찌질한 장면은 삭제해줘, 제발.
이봐 라이글, 내가 누굴 찾았나 보라고.
에블린! 준호야! 그래! 모두 무사할 줄 알았다고.
아윽!

감사하단 말씀부터 드려야겠지만 제 아들을 여기서 최대한 멀리 탈출시켜야 해요.
물론이죠. 저희가...
그래야죠. 먼저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 주시죠.
흑흑
저그가 모두 휩쓸었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었죠.
아무도 저희를 구하러 오지 않았고요. 제가 알기론 저희가 유일한 생존자예요.
그래서 숨어 지냈죠. 그러다 식량이 바닥나서 어쩔 수 없이 조룸 정제소를 떠나야 했고요.
조룸 정제소?
음... 네. 제가 거기서 일했거든요.
좋네요. 그럼 저희를 거기로 안내해 주시죠.
정제소 따위는 그냥 잊으세요. 제 얘기 못 들었어요?
들었어요. 여기서 탈출하고 싶나요? 그럼 서로 도와야죠.
노바, 잠깐 얘기 좀?

아까는 내가 민간인을 안 돕는다고 불만이더니. 이제 민간인을 데려간다고 화가 난 거야?
아니... 도우려는 게 아니잖아. 이용하려는 거지.
이 여자가 가진 정보가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 모두 대의를 위한 거라고.
부수적인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건 알아. 그래도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거 아냐?
우린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 범죄 조직을 무너뜨리고, 침입차들을 처치하고. 그런데 여기 죽은 행성에서 환상을 쫓고 있잖아.
그런 일들은 나중에 하면 돼, 라이글. 조룸을 확보하고 나서.
그게 언젠데? 언젠가부터 넌 조룸에 집착하기 시작했어. 판단이 흐려졌다고.
발레리안은 네가 옳은 일을 할 거라 믿었어.
그럴 거야. 나만의 방식으로. 그게 너한테 문제라면, 여기 억지로 붙잡아 둘 생각 없어.
날 보내겠다고?! 그렇게 쉽게? 그동안 내가...
라이글, 난...
됐어. 니 방식대로 하자고.

오늘 밤에는 잠시 숨었다가 동이 트면 조륨 정제소로 출발합니다.
이 계획에는 찬성하는 거지, 라이글?
그럭저럭.

엄마, 무슨 문제 있는 거야?
아냐. 걱정 마...

다 괜찮을 거야.
SILENCE IS THE PRICE OF FREEDOM

*침묵은 자유의 대가

SILENCE IS THE PRICE OF FREEDOM
다음 편에 계속...